

대한양계협회의 소식

도계유통에 관한 간담회 개최 — 농수산부·서울시·경기도 관계관, 생산자 대표 다수 참석 —



△ 4월 29일 개최된 도계유통에 관한 간담회에서는 생산자 대표들과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효율적인 도계유통의 정착으로 육계산업 안정을 기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도계품의 포장에 의무화되고 특급도계장에 한하여 타시도 반출을 허용하는 등 도계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계유통에 관한간담회」가 농수산부 전찬수 가축위생과장, 배상호 가축위생계장, 서울시 이규학 가축위생계장, 경기도 류기승 수의계장 등 정부 관계관과 생산자 대표가 참석,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찬수 가축위생과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

서 「축산인의 한사람으로 여러해 동안 양계동향을 지켜보아온 바 기복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나 양축가들의 협조로 잘 이끌어져왔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 도계유통의 개선은 국민보건위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커다란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의 닭고기가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인 바 정부와 생산자가 도계유통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나아가 수출의 길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 황인옥 전무는 자료를 통해 도계유통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84년 닭고기 소비실적 중 서울이 전국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1일 닭고기 소비량은 비수기시 20만수, 성수기시 35만수로 오는 5·16초치 이후 비수기시에는 특급도계장만으로 물량 충당이 가능하나 성수기에는 지방에서의 서울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인옥 전무는 또 현재 대부분 닭고기가 10℃ 이상에서 포장된 채 유통되어 변질이 빠르며 포장기술의 미비로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급 도계장으로 시설을 변경하는데 있어 수도권 정비계획, 공업배치법, 자금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생산자 대표들은 현재 특급도계장 시설을 갖춘 곳은 1, 2 곳에 지나지 않는데 5월 16일까지 과연 몇 군데의 도계장이 시설을 갖추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말하고 강행군을 하기보다는 현행법을 유보시켜 준비기간을 두어야 생산자 및 도계장측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찬수 과장)



(배상호 회장)



(이규학 회장)



(류기승 회장)



(황인옥 전무)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은 가축위생법을 만들 때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바 일단 공포된 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배상호 가축위생계장은 국민이 생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데 도계육에 대한 인식을 서둘러 재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이규학 가축위생계장은 현재 밀도계가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생산자도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생계 발전시마다 수시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류기승 수의계장은 경기도의 도계장은 22곳으로 현재 대부분이 특급도계장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5, 16까지는 10곳 이상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도계장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비점을 보완, 6월 또는 9월까지 특급도계장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동일권역으로 통합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후에 농수산부 이 수현 중소가축계장이 참석,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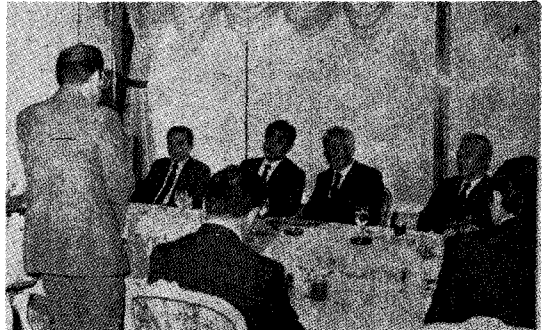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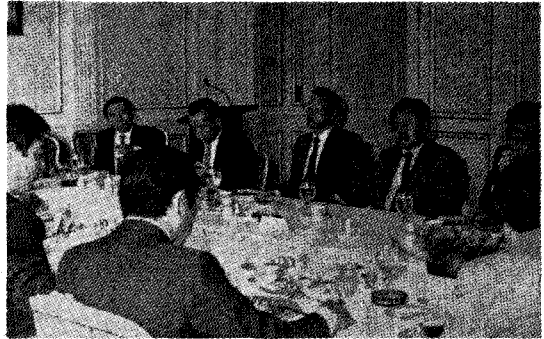
축산단체장 조찬회

— 5월 2일 팔레스호텔 —

축산생산자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은 5월 2일 오전 7시 팔레스호텔에서 지설하 축산국장, 조태

호 축산과장 초청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상윤 양계협회장 초청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조찬회는 지난해 전동용 양돈협회장 초청 조찬회에 이어 두번째이다.

양계협회에서 이상윤회장과 황인옥 전무, 낙농육우협회에서 유윤수회장과 김남용 전무, 양돈협회에서 전동용 회장과 한백용 전무, 종축개발협회에서 송찬원 회장과 박신희 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생산자 자조금 문제(check off system)와 최근 소값 등 축산물가격 하락과 분유체화 등 광범위한 축산업계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축사소독문제 양축가 의견받아들어

— 보사부 방문 언질 받아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축사시설 의무소독에 대하여 축사소독은 특수성에 맞추어 별도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이는 월간양계 지난호(통권 186호, p. 66 참조)에 본회에서 개최한 축사소독 의무화협의회의 내용과 같이 범시행상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본회 황인옥 전무가 지난 4월중 수차례에 걸쳐 농수산부·보사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설득, 보사부차관과 실무담당과장으로 부터 축사소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배제조항을 삽입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도 각 농장에서는 소독명령서가 발부되고있으며 일부에서는 남벌 가미까지 보여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보사부 차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답을 얻어낸 것이다.

본회 직원, 검정소 식수



△ 협회 직원들이 식수하고 있다

본회 황인옥 전무를 비롯한 전직원은 지난 4월 16일 안성 닭경제능력검정소에 포플러나무 3년생 1천여 그루를 검정소내에 식수했으며 직원의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화기애한 분위기로 식목행사를 마쳤다.

4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초생추 출하조사 재개 희망 —



4월 채란분과위원회가 17일 오후 4시 협회회의실에서 민덕기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축사의무소독, 등록제, 닭고기 외제품 유통 등에 대한 본회 황인옥 전무의 협회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일원에 나돌았던 ND 발생 상황, 4월말 개장되는 가락동 종합도매시장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금년도 난가는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특란과 대란 이하의 가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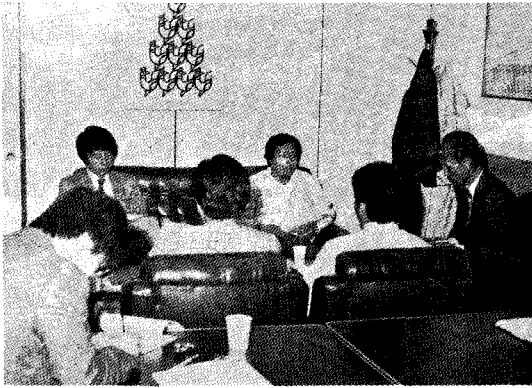
대군업자를 중심으로 한 GP센타 설치문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유보 상태에 있으며, 한냉의 경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위생상 1회용 난좌를 사용토록 하는 문제, 양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매스컴의 활용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 밖에 초생추조사를 재개토록 당국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닭질병좌담회 개최

— 4월23일(월) 본회사무실 —

최근 야외에서 닭질병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본회는 지난 4월23일(화)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업계 권위자들을 모시고 닭질병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옥박사(가축위생연구소), 김진구상무(녹십자수의약품), 송기홍원장(내외동물약품), 조정래(본회수원분회)씨가 참석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난 2년간에 걸쳐 본회주관으로 실시한 계군혈청 검사사업의 중요성이 거론되었으며 앞으로 민간차원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효율적인 닭질병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는 그동안의 혈청검사자료에 의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뉴캐슬(ND), 감보로 등에 대한 백신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p. 35 참조)를 하기 바란다.

양계업등록 간담회 개최

법취지 등 상세한 설명

— 점차 민간차원에서 주도해야 —



(이수현 계장)

본회는 지난 4월 29일(월) 오후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산법에 의한 양계업 등록 간담회를 가졌

다.

농수산부 축산과 이수현 중소가축계장을 초빙해 갖은 이날 간담회에는 30여명의 생산자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거론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경된 축산법은 지난 84년 3월 국회중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 돼지값 등 축산물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정, 84. 8. 2 공포해 6개월 이후부터(85. 2. 2)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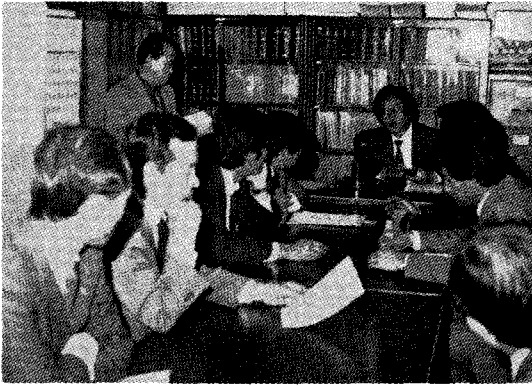
금년 4월 24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4월 27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양계·양돈업은 일정규모 이상 등록 또는 허가를 받게되어 있다. 소의 경우는 전체 사육두수의 94%가 4마리 이하의 부업 농가에서 사육되는 만큼 이번엔 제외되었고, 가격진폭이 대체적으로 심한 돼지와 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30% 정도의 사육동향은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양계의 경우는 산란계 3만수 이상, 육계 1만수 이상, 종계 1천수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하는데 육계의 경우는 너무 기준치가 낮은것 같으나 육계는 1.5~2개월 이면 출하될 수 있어 신속성있게 조절키위함이며 30% 물량의 규모가 1만수가 된다.

양돈 500두 이상 허가제는 규제측면이고 등록제의 실시는 생산 및 유통물량의 정보파악과 수급동향을 파악하여 생산자차원에서 가격의 적정화를 이루는 생산자보호차원에서 법이 운영될 것인만큼 일체의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되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더러 가격상승시에도 불합리한 행정간섭은 피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무허가축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바 등록제와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으며 시설에는 관계없이 규모문제만을 가지고 등록업무를 시행한다.

외국의 경우는 관련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해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의 경우는 등록·허가가



불과 2~3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차 사육계획, 사육규모 확인 등 수급조절과 관련하여 협회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며 자유경쟁하에서 스스로의 성·패는 각자의 책임에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는 무의미하며, 특히 지난 수년간 계속된 양계산물가격의 하락으로 경영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부실한 농장경영자는 도태되고 능력있는 양축가만 남아있어 스스로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감축명령발동 등의 효력은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입을 모으고 닭의 정확한 마리수의 파악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밖에도 법취지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가 이용된다면(세무자료, 무허가축사 단속, 농지전용 등) 범시행을 그르칠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었다

한편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83~84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양계협회가 실시한 초생추출하통계 조사사업을 다시 부활시켜 줄 것 등의 문제도 거론되었다.

부산경남지부 축산세무강습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성봉)는 4월17일 오후 2시 부산 온천예식장 2층에서 축산세무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지부 회원들의 세무지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양

계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강습회의 강사는 부산지방 국세청 소득세과 박원석 과장이 맡았다.

제 3 차 검정위원회 개최

— 85 제 1 차 육용계 검정 계획확정 —

지난 5월2일 본회 안성소재 닭 경제능력 검정소 현지에서 육용계 검정을 위한 제3차 검정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는 6월1일 입추 예정인 육용계 검정계획은 총 10구수에 8품종으로 1반복 100수로 암수 감별하여 4반복으로 총 4,000수를 검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검정은 암수 분리사육시 장단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집란기간은 5월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하며 구당 720개로 집란위원이 직접 농장에서 집란하게 된다.

종란기호부여는 5월10일, 초생추기호부여는 6월1일로 85년6월1일부터 7월26일 8주간 실시한다. 육용계 사양 관리 지침을 결정하고 검정규정을 보완 수정키 위해 85년 5월24일 오후 5시에 4차검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부회분과 소위원회 개최

지난 4월10일 본회 회의실에서 부회분과 활성화를 위한 중계 및 부회분과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박준영(본회 부회장)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아리 덩핑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면 부화업의 안정적 발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역별 경기 전망에서는 병아리 가격은 북병아리의 영향으로 다소 입추가 감소되어 약간의 약세가 예상되나 곧 북병아리의 입추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나타나고 산란계는 예년에 비해 주문이 일찍 줄어들어는 현상으로 가격이 약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5월16일부터 도계육의 타도반출금지(특급도계장 제외)에 대한 논의에서 시행할 경우 물량의 수입조달과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병아리 시세업서는 지방제에서의 호응도가 좋고 구독자가 많아 계속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지난 4월2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4월 정기육계분과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전망검토에서 서울 경기지역이 830~870원/kg이고, 중부지역이 800에서~830, 남부지역이 대체로 900원대로 높은 편이었다. 병아리 가격은 육계가격과 마찬가지로 중부이북지역보다 남부지역이 10원정도 더 높았다.

거래가격은 180원~250원선, 그리고 복병아리를 기대해 입추가 다소 부진한 편이고 물량의 체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가격이 좋지못한 실정이다. 경기전망과악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5월 육계분과 회의는 27일이 휴일인 관계로 인하여 5월29일로 변경 확정하였으니 육계 생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인천분회 사무실이전

분회 인천분회(분회장 박병식)는 지난 5월 3일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인천시 강남구 주안1동 213-11

전화 : 83-8773

「복덕방」란 신설

본지는 지난호부터 양계인의 편익을 위하여 복덕방란을 설치하여 농장판매를 희망하는 분이나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을 상호 연결하여 주고 있는 바 독자들의 희망에 따라 이번호부터는 고정란을 설치하였다.

이용방법은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회 편집국 복덕방란 담당자 앞(전화 778-8103~4)으로 전화 또는 서신으로 신청하거나 본회로 직접와서 신청하면 게재하여 주고 구입 희망자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 소 재 지 : 포천군 영북면

대 지 : 1,229평

계 사 : 4동(성계 및 초생추 보유)

희망매매가격 : 2,800만원

문의 전화 : 778-8103~4

■ 위 치 : 경기도 백암(국도에서 3Km 지점)

면 적 : 임야 22,000여평

문의 전화 : 778-8103~4

기 타 : 형질변경 및 정지면적(준공검사필 1만여평), 도로·전기·전화·환경여건 양호함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국도변

대 지 : 약 4,500평

계 사 : 9동1천평, 고상식 채란계사

연 락 처 : 778-8103~4

「병아리 및 노계시세업서」

「시세속보」 「사료관측업서」

구독문의 : ☎ (752) 3571~2 양계협회 지도조사부